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Elderly Households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부교수 이희숙*

석사과정 신상미

Dept. of Housing, 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Lee, Hee-Sook

Master Course : Shin, Sang-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status of retired elderly households. This study especially looked for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tatus among retired elderly households and the level of subjective financial strain. The data were drawn from the data of 2000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levels of income in the retired households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ose of the employed elderly households, and the transfer income took the biggest portion out of 5 income types reflecting high economic dependency. 2) The levels of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minimum living cost, and the food at home was 41.9% of the expenditure. 3) About 40% and 27.3% of households reported that they felt financial strain due to food expenditures at home and health care respectively. 4) Ninety percent of all assets were found to be real estate, reflecting the lack of asset liquidity. Further, retired elderly households were classified as 'not at all strained financially', 'moderate', 'seriously strained', and 'extremely strained' groups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assessment. The last two groups showed the lower level of income and expenditures than the first two groups. In particular, 26.5% of retired elderly households belonged to 'extremely strained' group and showed very serious economic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은퇴노인가계(retired elderly household), 경제구조(economic status)

1. 서론

인구구조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3%를 넘어서 노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2022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30년에는 19.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2).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복지 수준이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낮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연구(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김연정 1998; 양세정·성영애, 2001)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가장 큰 은퇴일 것이다. 은퇴는 곧 근로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은퇴전 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소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소득은 현실적으로 노후대비를 철저히 한 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이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은퇴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가계의 경제적 구조를 비노

* 주저자: 이희숙(E-mail: leehs@chungbuk.ac.kr)

인가계와 비교하거나 노인가계를 취업여부, 연령, 가구유형에 따라 분리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가계가 어떠한 경제구조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는 수준인지 혹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되 취업노인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며, 아울러 은퇴노인가계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갖게되는 경제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은퇴노인가계에 대한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계경제구조의 개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가계경제구조는 가계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태를 의미하며, 가계경제요소는 가계의 복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소득에 대한 정보는 가계소비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소비지출은 가계복지가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실제 소비지출에서 비롯된 가족구성원의 요구만족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가계의 소비지출 수준 또한 가계 경제복지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자산의 규모와 유형은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가계에 있어서, 소비지출을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의 규모와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요소라는 측면에서 가계복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이희숙, 1995). 부채의 경우 노인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의 이용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노인가계의 경우 역시 부채는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계복지 지표 중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2. 선행연구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경제구조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와 노인가계를 동질집단이 아닌 이질집단으로 보고 취업유무, 연령, 가계유형 등에 따라 노인가계를 분리한 집단간 비교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로써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은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통하여 노인가계의 가계총소득, 근로소득,

가계경상소득, 가계소비지출 수준이 비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또한 양세정·성영애(2001)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의 월평균소득, 금융자산, 부채 규모가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득원천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비용은 노인가계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소비비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활동과 관련이 높은 피복신발비, 교통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노인가계를 연령 혹은 가계유형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들은 동일한 노인집단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구조가 취약하며, 자녀동거 혹은 부부가계에 비하여 독거노인가계의 경제구조가 취약함을 보고하고 있다(김순미, 1998; 양세정·성영애, 2001).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가계를 취업(은퇴)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각 집단의 경제적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가계 집단에서도 취업여부는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은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수입이 은퇴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항상 제시되었다(Grad, 1990; Schulz, 1992; 성영애, 1994). Wang, Mok, & Hanna(김연정 1998에서 재인용)는 노인가계에서 은퇴는 소득감소와 이용 가능한 시간자원의 증가에 따라 소비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Zhong, Titus, & Johnson(1993)은 노인가계의 은퇴 유무에 따른 소득과 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은퇴가계가 비은퇴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제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한편 지출부문에 있어서 McConnel과 Deljavan(1983, Schulz, 1992에서 재인용)은 은퇴 전·후 노인가계의 비교를 통해 은퇴가계의 경우 주거비, 식비, 의료비의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연정(1998)이 1994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은 취업노인가계보다 적은 수준으로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지출 규모는 비슷하다고 하여 다른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타나내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은퇴가계가 오히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윤금(1999)은 중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이용하여 기타 가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경제구조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는 양세정·성영애(2001)를 들 수 있으며, 취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의 가계수지가 모든 면에서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취업노인가계의 반도 못 미치는 40.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총소비지출규모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거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든 비목에서 취업가계의 지출규모가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계와 비취업가계의 비목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취업노인가계와 비슷하나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3배로 높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취업노인가계는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하여 금융자산과 부채가 더 많았으며, 따라서 순금융자산 규모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순희·김현정(2002)은 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의 충분성을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으며,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는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 2)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는 그들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 경제구조의 정의 및 분석범위

본 연구에서 경제구조라 함은 가계경제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은 ① 소득수준과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유형, ② 총소비지출 수준과 각 하위지출비목에 따른 지출액과 지출비중, ③ 보유자산의 규모 및 자산유형, 부채 규모 및 부채유형, 순자산 규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나아가 ④ 가계 경제의 기본요소 중 2가지, 즉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은퇴노인가계의 소득 및 지출의 충분성, 비상자금의 충분성, 부채부담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비교 분석되었으며 첫째는 취업노인가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이유는 은퇴에 대비되는 특성이 취업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은퇴노인가계를 그들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재무비율의 개념과 측정방법

재무비율은 가계경제요소의 비율로써 가계경제요소 중 2개

를 이용한 상대적 비율을 통하여 가계의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노인가계의 ① '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소득/월지출과 월소득/최저생계비의 비율, ② '지출의 충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지출/최저생계비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부부가계의 경우 536,614원을, 독거가계 324,011원을 최저생계비로 이용하였다(표 2 참조). 또한 ③ '최저비상자금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계수를 이용하였다. 가계의 비상자금을 측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사건 발생시 현재 소비지출에 대한 유동자산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택한 이유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우 금융자산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많고 극단값을 보이는 가계로 인하여 결과와 그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가계경제요소 개념

경제요소 비율	개 념	
소득의 충분성	월소득/월지출	소비에 대한 소득비율로 현재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며, 1.0 미만이면 생활비가 소득을 초과함을 의미함. 비율이 클수록 바람직.
	월소득/월최저생계비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1.0이면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수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율이 커질수록 최저생계 이상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지출의 충분성	월지출/월최저생계비	가계가 충분한 소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을 초과하면 최저생계 이상의 지출생활을 하는 가계라고 평가할 수 있음.
최저비상자금유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수	특정 이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자산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함.

<표 2>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

거주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이상
중소 도시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자료 : 보건복지부(1999. 12. 1). 2000년도 최저생계비.

주 : 최저생계비 자료에는 거주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에는 거주지역이 생략되어 있어 중·소도시지역 최저생계비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4.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집단 분류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은 '택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이 결과

에 따라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매우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가계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를 합하여 '여유로움'(8가구, 6.6%), '보통'(43가구, 35.5%), '조금 어려움'(38가구, 31.4%), '매우 어려움'(32가구, 26.5%) 등 4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구분	N(%)
매우 여유가 있다	1(0.8)
여유가 있는 편이다	7(5.8)
보통이다	43(35.5)
조금 어려운 편이다	38(31.4)
매우 어렵다	32(26.5)
합계	121(100)

5.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로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농촌지역의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면접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추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은퇴노인가구를 선택하기 위해 첫 단계로 현재 취업여부를 묻는 문항에 '은퇴하였다',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는 계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가구만을 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가구주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구만을 추출하였는데 55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김미혜, 1993에서 재인용). 세 번째 단계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계를 제외시켰으며(독거 및 부부가계만으로 한정함) 이는 은퇴노인가계 분석시 동거자녀로 인한 소득, 지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은퇴한 가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제거하였으며, 단 소일거리가 있다고 답변한 가구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만을 제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은퇴노인가계로 121가구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은퇴노인가계의 비교집단으로 취업노인가계는 현재 취업여부를 묻는 문항에 '은퇴하지 않았다'에 답변한 가구들 중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된 일자리'이면서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진 가계만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은퇴노인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연령이 55세 이상이며 독거 혹은 부부가계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3가구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AS PC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퍼센트, χ^2 -test를 이용하

였으며,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결과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은퇴노인가계 집단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t-test와 F-test를 이용하였다.

6. 변수의 정의

변수의 정의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명 및 정의

변수명	정의
총소비 지출	소비지출비목, 즉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구입비, 통신비, 기타 생활용품비를 합한 금액이다.
지출 비목	·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 외식비 ·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 경조사비 · 보건의료비 · 문화비(TV·케이블 TV·위성 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 기타생활용품비
소득	매월 정기적으로 가계에 들어오는 화폐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금융소득(이자, 투자소득, 배당금 등, 이 전소득(정부, 사회단체, 자녀 혹은 친지로부터 받는 돈), 사회보험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부동산소득(월세 등의 임대료, 토지도지세) 등을 포함한다.
금융 자산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금, 저축성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실물 자산	주거용 주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의 시가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집주인에게 지불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는 보증금의 특성이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부채	부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부채, 사채, 전세금·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갚아야 할 계돈 등을 포함한다.
1인당 소득*	부부가계인 경우 가계소득을 1.8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1인당 지출*	부부가계인 경우 가계지출을 1.8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 Fisches' scale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성인 가중치를 1로 보았을 때, 두 번째 성인의 가중치를 0.8로 보았다(Sabelhaus, J. & Manchester, J.,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인가계를 단순히 2로 나누지 않고 1.8로 나누어 1인당소득 및 지출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주택소유여부와 가구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은퇴노인가계 전체(총 121가구)의 경우 약 90% 정도가 남성 가구주이며, 65~74세가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5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졸 16.9%, 고졸 이상은 30.7%의 구성비율을 나타냈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77.7%로 높은 주택소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유형은 부부가계가 88.4%로 독거가구 11.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비교집단인 취업노인가계(총 73가구)를 살펴보면, 71.2%가 남성가구주이며 은퇴노인가계(89.3%)에 비해 낮은 구성비율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60% 이상이 55~64세의 분포를 보여 은퇴가계에 비해(50% 이상이 65~74세에 분포) 젊은 연령층의 구성비율이 높다. 교육수준은 56.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이며 은퇴노인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가계는 64.4%로서 은퇴노인가계보다 약 13% 포인트 정도 낮은 소유율을 보였으며, 가구유형은 은퇴가계보다 부부가구의 비율이 14% 포인트 정도 낮은(독거가구의 비율이 15.3%포인트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가구(%)

년 인	구 분	은퇴 노인가계	취업 노인가계	χ^2 값
가구주 성별	남	108(89.3)	52(71.2)	10.2**
	여	13(10.7)	21(28.8)	
	계	121(100)	73(100)	
가구주 연령	55~64세	22(18.2)	43(58.9)	31.3**
	65~74세	63(52.1)	26(35.6)	
	75세 이상	36(29.7)	4(5.5)	
	계	121(100)	73(1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62(51.2)	41(56.2)	2.2
	중졸	21(17.4)	16(21.9)	
	고졸 이상	38(31.4)	16(21.9)	
	계	121(100)	73(100)	
주택소유 여부	주택 소유	94(77.7)	47(64.4)	4.1*
	주택미소유	27(22.3)	26(35.6)	
	계	121(100)	73(100)	
가구유형	독거가계	14(11.6)	19(26.3)	6.7*
	부부가계	107(88.4)	54(74.0)	
	계	121(100)	73(100)	

*p<.05 **p<.01 ***p<.001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로 분리한 4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유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매우 어려움'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은퇴노인가계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가구(%)

변 인	구 분	여유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χ^2 값
가구주 성별	남	7(87.5)	40(93.0)	33(86.8)	28(87.5)	0.99
	여	1(12.5)	3(7.0)	5(13.2)	4(12.5)	
	계	8(100.0)	43(100.0)	38(100.0)	32(100.0)	
가구주 연령	55~64세	1(12.5)	10(23.3)	8(21.1)	3(9.4)	3.27
	65~74세	5(62.5)	20(46.5)	20(52.6)	18(56.2)	
	75세 이상	2(25.0)	13(30.2)	10(26.3)	11(34.4)	
	계	8(100.0)	43(100.0)	38(100.0)	32(100.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3(37.5)	25(58.1)	16(42.1)	18(56.3)	7.45
	중졸	1(12.5)	4(9.3)	8(21.1)	8(25.0)	
	고졸 이상	3(50.0)	14(32.6)	14(36.8)	6(18.7)	
	계	8(100.0)	43(100.0)	38(100.0)	32(100.0)	
주택소유 여부	주택 소유	7(87.5)	38(88.4)	32(84.2)	17(53.1)	15.34*
	주택미소유	1(12.5)	5(11.6)	6(15.8)	15(46.9)	
	계	8(100.0)	43(100.0)	38(100.0)	32(100.0)	
가구 유형	독거가계	1(12.5)	3(7.0)	5(13.2)	5(15.6)	1.50
	부부가계	7(87.5)	40(93.0)	33(86.8)	27(84.4)	
	계	8(100.0)	43(100.0)	38(100.0)	32(100.0)	

**p<.01

2.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1) 소득 구조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은 주로 금융소득(은행예금이자, 투자수익 등), 부동산소득(월세, 건물/토지임대료 등), 사회보험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이전소득(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은 연평균 690만2천원(월평균 57만5천원)의 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1인당 소득은 연평균 397만8천원(월평균 33만1천원)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유형 중 이전소득은 37.1%(256만3천원)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은퇴노인가계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금 32.1%(222만1천원), 금융소득 15.4%(106만원), 부동산소득 15.0%(103만7천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전소득은 정부보조금 10.3%를 제외하고 대부분(82.4%)이 자녀로부터의

<표 7> 소득구조

단위 : 만원

소득 구성요소	은퇴노인가계(N=121)			취업노인가계(N=73)			t값
	연평균	S.D.	%	연평균	S.D.	%	
총 소득	690.2	716.8	100	1172.2	940.7	100	-4.02***
총 근로소득	2.0	15.4	0.4	1009.3	708.6	86.1	-15.66***
총 금융소득	106.0	297.0	100	11.6	75.3	100	2.66**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102.7	293.9	96.9	11.6	75.3	100	2.60*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3.3	32.9	3.1	0.0	0.0	0.0	0.86
·배당금	0.0	0.0	0.0	0.0	0.0	0.0	-
총 부동산소득	103.7	297.3	100	61.9	268.4	100	0.98
·월세 등 임대료	93.3	281.4	90.0	59.0	267.9	95.3	0.84
·토지를 도지준 것	3.8	24.7	3.6	2.9	24.8	4.7	0.25
·기타	6.6	72.7	6.4	0.0	0.0	0.0	0.78
총 사회보험금	222.1	629.0	100	42.2	282.6	100	3.6
총 이전소득	256.3	310.5	100	47.1	210.8	100	4.0
·정부보조금	26.3	85.7	10.3	29.8	202.9	63.3	-0.17
·사회단체보조금	1.4	12.9	0.5	0.1	1.2	0.2	0.83
·친척/친지 보조금	211.2	272.7	82.4	17.1	63.8	36.3	5.98***
·기타보조금	17.4	163.6	6.8	0.1	1.2	0.2	0.90
1인당 소득	397.8	397.7		726.5	528.5		-4.92***

*p<.05 **p<.01 ***p<.001

보조금으로 추측되는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밝혀졌으며,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 및 투자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동산소득은 월세 등 임대료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은퇴노인가계의 소득 구조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해 보면, 우선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은 취업노인가계의 58.9%에 해당될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양세정 등(2001)의 연구에서 밝힌 40.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은퇴노인가계의 경우 사회보험금과 이전소득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근로소득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86.1%)을 나타내고 있어 동일한 노인가계라도 취업유무에 따라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소득 구조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외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유형 중 부동산소득은 양쪽가계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이전소득의 경우 은퇴노인가계는 친척/친척 보조금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정부 보조금이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2) 소비지출 구조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은 연평균 701만2천원(월평균 58만4천원)의 수준이며,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소비지출액은 408만8천원(월평균 34만원)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보건복지

부에서 발표한 2000년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32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지출비중 순위 5위까지의 비목으로는 식비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 14.6%, 보건의료비 13.3%, 경조사비 8.9%, 기타생활용품비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해 보면,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은 취업노인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김연정(199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취업노인가계(504만3천원, 월평균 42만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은퇴가계의 지출비중 순위 5위까지의 비목 유형은 취업가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순위에 있어서 기타생활용품비와 경조사비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는 차이만 나타났다. 은퇴가계는 취업가계와 마찬가지로 식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취업가계보다 약 10%포인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은퇴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주거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의 비중은 양쪽가계가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기타생활용품비의 경우,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취업과 관련된 소비생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은퇴노인가계의 식비 지출비중 즉, 앵겔계수가 41.9라는 점이다. 앵겔계수 기준에 의하면 총지출에

대한 식비의 비중이 50일 경우, 이 가계의 생활수준은 '겨우 생존 가능한 생활 수준(이기춘, 1995: 55)'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노인가계의 낮은 경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지출 비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은퇴노인가구의 39.7%가 '식비'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취업노인가계의 27.4%에 비해 약 12.3%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서 은퇴라는 변수가 가계의 경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출비목은 보건의료비로서 양쪽가계 모두 3위로 높은 지출비중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또한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지출 비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은퇴노인가계의 27.3%, 취업노인가계의 23.3%가 의료비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식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써 노인가계가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8> 소비지출 구조

단위: 만원

변수	은퇴노인가계(N=121)				취업노인가계(N=73)				t값	
	연 평균	S.D.	%	순위	연 평균	S.D.	%	순위	실지출	비중
총 소비 지출	701.2	521.1	100		786.7	439.2	100		-1.17	
식비	293.8	196.9	41.9	1	254.0	110.1	32.3	1	1.58	4.15***
의식	19.9	54.0	2.8	9	24.3	56.5	3.1	8	-0.54	-0.07
주거	102.4	76.4	14.6	2	143.0	144.9	18.2	2	-2.55*	-1.19
경조사	62.3	96.8	8.9	4	65.4	80.4	8.3	5	-0.23	-1.04
보건 의료	93.1	160.5	13.3	3	83.8	175.3	10.7	3	0.38	1.33
문화	19.3	74.4	2.8	9	17.4	33.5	2.2	9	0.21	0.38
통신	31.1	31.2	4.4	7	49.0	39.3	6.2	7	-3.49***	-2.48*
기타 생활 용품	39.0	111.6	5.6	5	82.2	154.3	10.4	4	-2.26*	-3.01**
공교육	3.0	32.7	0.4	11	8.2	70.2	1.0	11	-0.71	-0.59
사교육	0.0	0.0	0.0	12	0.0	0.0	0.0	12	-	-
차량 유지	32.2	108.7	4.6	6	45.4	114.2	5.8	6	-0.80	-1.84
내구재	5.0	20.4	0.7	10	14.0	73.0	1.8	10	-1.28	-1.06
1인당 지출	408.8	288.3			437.1	288.2			-2.23*	

*p<.15 **p<.01 ***p<.001

<표 9>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지출비목

부담스러운 지출비목	은퇴 노인가계(N=114)	취업 노인가계(N=72)
· 식비	48(39.7)	20(27.4)
· 의료비	33(27.3)	17(23.3)
· 교육비	1(0.8)	1(1.4)
· 주거비	7(5.8)	9(12.3)
· 각종 빛의 원리금 상환	4(3.3)	8(11.0)
· 기타	8(6.6)	6(8.2)
· 없음	13(10.7)	11(15.10)
계	114(100)	66(100)

주: 은퇴노인가계의 경우 합계가 221가구보다 적은 것은 무응답가구에서 비롯된 것임.

3) 자산 구조

은퇴노인가계의 총자산은 13,919만원의 수준이며 이들 대부분은 실물자산(9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은 약 10%의 구성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실물자산의 61.9%를 거주주택이 구성하고 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을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자산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자산은 은행예금(95.3%)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해 볼 때, 은퇴노인가계의 총자산 규모는 취업노인가계의 약 1.5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퇴직금이 아직 자산규모에 포함되기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의 일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실물자산과 유동자산의 비율은 취업노인가계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경우, 은퇴노인가계는 95% 이상이 은행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취업노인가계는 은행예금(78.6%)과 저축성보험(13.8%)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며 이는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은퇴에 대비한 보험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퇴노인가계의 부채는 789만3천원의 수준이며, 전(월)세/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80.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금융기관부채 15.0%, 개인적으로 빌린 돈 4.9%로 나타났고, 그 외의 요소는 매우 적은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해 보면 은퇴노인가계의 총부채 규모는 취업노인가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성요소는 전(월)세/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취업노인가계에 비

<표 10> 보유자산의 구조

단위 : 만원

자산 종류	자산의 구성요소	은퇴노인가계(N=121)			취업노인가계(N=67)			t값
		M	S.D.	%	M	S.D.	%	
총자산		13919.0	17075.8	100	7745.6	9754.8	100	2.82**
금융 자산	총 금융자산	1398.8	3103.7	100	726.3	1440.5	100	1.74
	· 은행예금	1333.6	3068.3	95.3	570.8	1329.7	78.6	2.01*
	· 주식/채권/신탁	6.6	72.7	0.5	0.0	0.0	0.0	0.78
	· 저축성 보험	4.1	32.7	0.3	100.1	494.9	13.8	-2.13*
	· 아직 타지 않은 계 돈	10.3	92.8	0.7	27.4	234.1	3.8	-0.72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43.0	300.2	3.1	27.4	234.1	3.8	0.38
	· 기타	1.1	12.3	0.1	0.7	5.6	0.1	0.30
실물 자산	총 실물자산	12520.3	16003.0	100	7019.3	9209.0	100	2.68**
	· 주택의 시가	7755.4	8917.7	61.9	4502.1	6788.9	64.1	2.58**
	· 거주주택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547.1	1649.4	4.4	716.5	1671.9	10.2	-0.69
	· 거주주택의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3291.3	10856.3	26.3	1524.0	4402.7	21.7	1.33
	· 거주주택의 부동산 사용을 위한 전(월)세/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926.4	3316.0	7.4	276.7	1073.6	3.9	1.62
부채	총 부채액	789.3	3143.1	100	801.1	1879.0	100	-0.03
	· 금융기관 부채	118.2	483.2	15.0	309.2	847.0	38.6	-2.00*
	· 비금융기관 부채	0.0	0.0	0.0	4.2	35.6	0.5	-1.29
	· 개인적으로 빌린 돈	38.8	285.6	4.9	116.4	648.3	14.5	-1.15
	· 전(월)세금/임대 보증금 형태로 받은 돈	632.2	3050.1	80.0	368.5	1439.6	46.0	0.69
	·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0.0	0.0	0.0	2.7	23.4	0.3	-1.29
순자산		13129.7	15897.3	100	6944.5	9462.9	100	3.02**

*p<.05 **p<.01 ***p<.001

해 거의 2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은퇴노인가계가 퇴직금으로 임대소득을 겨냥한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금융기관 부채는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1/2 수준의 비중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1/3 수준의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순자산 측면에서 부채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 때문에 부채로 포함시켰으나, 대부분 가계에서 보증금을 임대인이 갚아야 할 부채로 고려하지 않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지불하는 것이 상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제외한 부채규모를 다시 살펴보았다. 이 경우, 은퇴노인가계는 157만1천원으로 취업노인가계(432만9천원)의 약 1/3 수준을 보였다.

순자산은 은퇴노인가계의 경우 13,129만7천원으로 취업노인가계 6,944만5천원에 비해 1.5배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한 자료에서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아직 퇴직금이 자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은퇴노인가계의 재무관리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자산의 유동

성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은퇴가계의 경제변수 즉, 소득을 비롯한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가 각각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경제변수 중 순자산을 제외시킨 이유는 순자산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퇴노인가계의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가구유형 요인의 영향력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이들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출하고 있는 가계가 없는 즉, 0

의 소비지출 가계를 포함하고 있는 비목(총소비지출과 식비, 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은 t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비지출하는 가계가 거의 없는 4개 비목(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내구재 구입비)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은 총소비지출을 비롯하여 가장 많은 지출비목에 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즉, 소득은 총 8개의 지출비목 중 7개의 비목(식비, 외식비, 주거비, 경조사비, 문화비, 통신비)에 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어 은퇴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은 여타 경제변수보다 소득의 증감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금융자산은 3개의 하위 지출비목 즉, 외식비, 주거비, 문화비에 정적 영향을 끼치며, 실물자산은 총소비지출을 비롯하여 2개의 지출비목 즉, 식비, 통신비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노인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지출을 함에 있어서 소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유동화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실물자산은 실제 노인소비자의 경제복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노인가계의 자산의 유동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가계재무비율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의 충분성은 현재 지출수준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역시 최저생계비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 비목별 지출하고 있는 가계

지출비목	은퇴가계 (N=121)		취업가계 (N=73)	
	수	비율	수	비율
총소비지출	121	100.0	73	100.0
· 식비	121	100.0	73	100.0
· 외식비	27	22.3	20	27.4
· 주거비	112	92.6	71	97.3
· 경조사비	75	62.0	54	74.0
· 보건의료비	99	81.8	60	82.2
· 문화비	65	53.7	53	72.6
· 통신비	120	99.1	73	100
· 기타 생활용품비	41	33.9	37	50.7
· 공교육비	1	0.8	1	1.37
· 사교육비	0	0.0	0	0.0
· 차량유지비	12	9.9	14	19.2
· 내구재 구입비	12	9.9	8	11.0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은퇴노인가계의 지출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하다는데서 비롯되며, <표 13>의 지출의 충분성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노인가계의 지출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규모를 나타내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2> 은퇴노인가계가 보유한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총소비 지출	식비	외식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 의료비	문화비	통신비	기타
소득	0.3450*** (0.5684)	0.1199*** (0.0237)	0.0005** (0.0002)	0.0002* (0.0001)	0.0004** (0.0001)	0.000 (0.0002)	0.0010*** (0.0002)	0.0002* (0.0001)	0.0005 (0.0003)
유동자산	0.0083 (0.0120)	0.0022 (0.005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실물자산	0.0069** (0.0023)	0.0037*** (0.0009)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부채	0.1088 (0.0607)	0.0285 (0.0253)	0.0000 (0.0000)	0.0003** (0.0001)	0.0000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1)	-0.0003 (0.0003)
연령	-5.3073 (5.3316)	-1.1841 (2.2201)	-0.0342 (0.0225)	0.0031 (0.0077)	-0.0107 (0.0163)	0.0048 (0.0209)	-0.0233 (0.0166)	-0.0193* (0.0086)	-0.0593 (0.0350)
중졸 (초졸)	33.9122 (93.5311)	13.8183 (38.9475)	-0.1893 (0.3851)	-0.0154 (0.1374)	0.0033 (0.2907)	0.3945 (0.3912)	-0.1456 (0.2862)	-0.0328 (0.1733)	-0.1153 (0.6412)
고졸 (초졸)	263.3645** (85.5359)	72.6904* (35.6182)	0.5591* (0.2586)	0.2624* (0.1202)	0.0702 (0.2538)	-0.0191 (0.2861)	-0.2877 (0.3123)	0.2199 (0.1494)	0.3677 (0.5274)
자가 (비자가)	6.8343 (84.7767)	37.3196 (35.3021)	0.7901*** (0.2233)	0.0005 (0.1285)	0.0914 (0.2629)	0.0024 (0.3146)	1.0460*** (0.3147)	0.0844 (0.1684)	0.1001 (0.5302)
부부 (독거)	41.6716 (110.0321)	-5.0985 (45.8188)	-0.3517 (0.5088)	0.4651** (0.1652)	0.5232 (0.5724)	0.0003 (0.3790)	0.4747 (0.4567)	0.2837 (0.2172)	1.2312 (0.6386)
상수	933.8531	266.0951	3.5022	6.1762	6.0647	2.5235	1.6229	20.6911	4.7802
F값/R ²	7.46***	2.91**	-6.8579*	-66.8780**	-57.8734**	-72.9423**	-58.4860**	3.16**	-50.5011**
Log likelihood	0.4468	0.1930						0.2126	

*p<.05 **p<.01 ***p<.001, 변수의 ()는 준거집단, 회귀계수는 β(비표준화)값이며 ()안은 standard error

이러한 결과는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은퇴노인가계의 39.7%가 전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동자산을 통한 비상자금의 충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가계와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가계재무비율

가계경제요소 비율		은퇴 노인가계	취업 노인가계	t 값/ x ² 값
소득의 충분성	월소득/월지출	1.0(0.73)	1.6(1.24)	-3.90**
	월소득/최저생계비	1.1(1.11)	2.0(1.46)	-4.72***
지출의 충분성	월지출/최저생계비	1.1(0.81)	1.4(0.72)	-2.17*
최저비상자 금융부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계수	48(39.7%)	25(37.3%)	0.10

*p<.05 **p<.01 ***p<.001,
최저비상자금유무를 제외한 ()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3.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경제구조

1) 소득 구조

은퇴노인가계는 연평균 988만원 이상(월평균 82만3천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의 경우, 경제상태가 '여유롭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평균 548만원 이하(월평균 45만6천원 이하)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의 경우, 경제상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은퇴노인가계가 재정적인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988만원(월평균 82만3천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인당 소득 수준은 연평균 565만원(월평균 47만원) 이상의 수준에서 경제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320만원(월평균 26만6천원) 이하일 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임금수준을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평균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금융소득과 사회보험금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가계('여유로움'과 '보통' 집단)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계('조금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 집단)에 비해 금융소득과 사회보험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상태가 안정된 가계일수록 노후준비의 한 형태인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수준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매우 어려움'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지출 구조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은 연평균 854만8천원(월평균 71

<표 14>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소득구조

소득 구성요소	여유로움(N=8)			보통(N=43)			조금 어려움(N=38)			매우 어려움(N=32)			F값
	M	S.D.	%	M	S.D.	%	M	S.D.	%	M	S.D.	%	
총 소득	1242.4 ^a	1048.2	100	988.5 ^b	837.2	100	548.0 ^b	540.5	100	320.3 ^b	273.0	100	8.86***
총 근로소득	0.0	0.0	0.0	0.0	0.0	0.0	3.2	19.5	0.6	3.8	21.2	1.2	0.49
총 금융소득	400.0 ^a	501.4	100	154.5 ^b	360.2	100	62.9 ^b	227.8	100	18.8 ^b	106.1	100	4.55**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 소득	400.0	501.4	100	154.5	360.2	100	61.8	228.0	98.3	7.5	42.4	38.9	4.99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0.0	0.0	0.0	0.0	0.0	0.0	1.1	6.5	1.7	11.3	63.6	60.1	0.85
총 부동산소득	120.0	339.4	100	194.5	406.5	100	79.7	240.6	100	6.3	35.4	100	1.9
· 월세 등 임대료	120.0	339.4	100	191.0	407.5	98.2	55.7	162.2	69.9	0.0	0.0	0.0	3.33
· 토지를 도지준 것	0.0	0.0	0.0	3.5	22.9	1.8	2.9	18.2	3.6	6.3	35.4	100	0.18
· 기타	0.0	0.0	0.0	0.0	0.0	0.0	21.1	129.8	26.5	0.0	0.0	0.0	0.72
총 사회보험금	628.5 ^a	869.8	100	369.4 ^b	847.4	100	146.4 ^b	467.9	100	12.6 ^b	42.1	100	3.9
총 이전소득	93.9	120.5	100	270.1	334.7	100	255.9	348.5	100	278.9	256.1	100	87.1
· 정부보조금	6.3 ^b	15.8	6.7	5.0 ^b	8.4	1.9	21.0 ^b	77.9	8.2	66.3 ^b	136.4	23.8	3.63*
· 사회단체보조금	1.0	2.8	1.0	0.0	0.0	0.0	3.7	22.7	1.4	0.6	3.5	0.2	0.61
· 친척/친지 보조금	81.3	119.8	86.6	264.0	336.0	97.7	182.4	221.7	71.3	207.2	252.4	74.3	1.30
· 기타보조금	5.4	10.5	5.7	1.2	5.7	0.4	48.8	291.8	19.1	4.8	11.8	1.7	0.68
1인당 소득	700.2 ^a	571.3		565.1 ^b	466.1		319.9 ^b	298.7		189.9 ^b	152.1		8.97***

*p<.05 **p<.01 ***p<.001; a, b는 duncan test 결과를 나타냄.

만2천원) 이상의 수준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금 어려움' 집단은 연평균 686만5천원(월평균 57만2천원)의 수준과 '매우 어려움' 집단은 연평균 432만4천원(월평균 36만원)의 수준을 각각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인당지출수준은 연평균 494만2천원(월평균 41만1천원) 이상의 수준일 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연평균 401만7천원(월평균 33만5천원) 이하일 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 역시 임계값이 아니며 평균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출 하위비목을 살펴보면, 식비는 '매우 어려움' 집단만이 연평균 203만9천원(월평균 16만9천원)의 수준을 보이며 여타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집단간 차이는 외식비, 주거비, 경조사비의 경우 식비와 동일한 경향 즉, '매우 어려움' 집단만이 여타 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지출수준을 보인 반면, 그 외 지출 비목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출하위비목별 지출 비중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식비의 경우 각 집단별로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여유로움' 집단과 '매우 어려움' 집단이 20% 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보통과 조금 어려움 집단은 약 13% 이하의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유로움' 집단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 '매우 어려움' 집단의 경우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집단의 경우 보건의료비가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주요 비목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보유자산의 구조

은퇴노인가계의 총자산 규모의 경우, '여유로움' 집단과 '보통'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며 4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조금 어려움' 집단과 '매우 어려움' 집단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순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우, 사회보험금 이외의 소득 대부분이 자산소득의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산의 규모가 현재 경제상태의 주관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총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금융자산의 경우 '여유로움'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의 규모가 4억50만3천원으로써 여타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실물자산의 경우는 '매우 어려움' 집단이 여타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매우 어려움' 집단의 주택보유율이 여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실물자산의 대부분은 주거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주택보유율이 낮은 것은 결국 실물자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 규모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전(월)세/임대 보증금의 경우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실물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5>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소비지출 구조

변수	여유로움(N=8)				보통(N=43)				조금 어려움(N=38)				매우 어려움(N=32)				F 값	
	M	S.D.	%	순위	M	S.D.	%	순위	M	S.D.	%	순위	M	S.D.	%	순위	지출 수준	비중
총 소비지출	1020.0 ^a	403.7	100.0		854.8 ^a	641.1	100.0		686.5 ^b	437.3	100.0		432.4 ^c	308.7	100.0		5.69**	
· 식비	390.0 ^a	210.3	38.2	1	334.3 ^a	225.6	39.1	1	297.5 ^b	122.1	43.3	1	210.8 ^b	203.9	48.8	1	3.33*	1.00
· 외식비	34.5 ^a	54.2	3.4 ^a	6	40.5 ^a	74.8	4.7 ^a	7	8.2 ^b	39.9	1.2 ^b	10	2.6 ^b	7.3	0.6 ^b	8	4.28**	5.46**
· 주거비	127.5 ^a	67.3	12.5	3	122.2 ^a	93.5	14.3	2	109.6 ^b	66.6	16.0	2	61.1 ^b	43.7	14.1	3	4.92**	0.42
· 경조사비	121.5 ^a	121.9	11.9 ^a	4	90.4 ^a	116.6	10.6 ^a	3	46.1 ^b	89.7	6.7 ^b	5	28.9 ^b	37.6	6.7 ^b	4	4.13**	3.18*
· 보건의료비	220.5	424.6	21.6 ^b	2	76.7	117.3	9.0 ^b	4	88.1	124.6	12.8 ^b	3	89.3	131.1	20.6 ^b	2	1.89	2.03*
· 문화비	16.5	11.0	1.6	8	27.1	109.1	3.2	9	21.8	64.0	3.2	8	6.8	11.4	1.6	7	0.47	0.22
· 통신비	33.0	15.4	3.3	7	38.0	41.1	4.5	8	31.9	29.4	4.6	6	20.6	15.0	4.8	5	1.95	0.90
· 기타 생활용품비	75.0	86.7	7.4	5	47.4	92.5	5.5	6	45.8	166.4	6.7	5	10.5	23.0	2.4	6	1.11	0.34
· 교육비	0.0	0.0	0.0	11	0.0	0.0	0.0	11	9.5	58.4	1.4	9	0.0	0.0	0.0	12	0.72	0.72
· 차량유지비	0.0	0.0	0.0 ^b	11	68.4	154.1	8.0 ^a	5	25.3	93.2	3.7 ^a	7	0.0	0.0	0.0 ^b	12	2.94*	3.01*
· 가구재 구입비	1.5	4.2	0.1	9	9.8	31.5	1.1	10	2.8	12.2	0.4	11	1.9	5.4	0.4	9	1.27	0.30
1인당 총소비지출	581.3 ^a	194.8			494.2 ^a	360.2			01.7 ^b	233.5			259.5 ^b	177.5				

*p<.05 **p<.01 ***p<.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를 나타냄.

<표 16>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수준별 보유자산 구조

자산 종류	자산의 구성요소	여유로움(N=8)			보통(N=43)			조금 어려움(N=38)			매우 어려움(N=32)			F값		
		M	S.D	%	M	S.D	%	M	S.D	%	M	S.D	%			
총 자산		26112.8 ^a	18217.2	100	19300.7 ^a	19328.4	100	14061.1 ^b	16910.5	100	3470.2 ^c	3878.7	100	7.96***		
금융 자산	총 금융자산	4050.3 ^a	3271.6	100	2056.5 ^b	4130.7	100	975.5 ^b	2332.6	100	6.9	354.6 ^b	1224.8	100	4.37**	
	· 은행예금	3762.8 ^a	3267.7	92.9	2038.4 ^b	4131.4	99.2	928.2 ^b	2319.8	95.1		260.8	939.3	73.5	4.28**	
	· 주식/채권/신탁	0.0	0.0	0.0	0.0	0.0	0.0	21.1	129.8	2.2		0.0 ^b	0.0	0.0	0.72	
	· 저축성 보험	37.5 ^a	106.1	0.9	4.7 ^b	30.5	0.2	0.0 ^b	0.0	0.0		0.0 ^b	0.0	0.0	3.35*	
	· 아직 타지 않은 계	125.0 ^a	353.6	3.1	5.7 ^b	32.4	0.3	0.0 ^b	0.0	0.0		0.0	0.0	0.0	4.82**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125.0	353.6	3.1	4.7	30.5	0.2	26.3	162.2	2.7		93.8	530.3	26.5	0.77	
	· 기타	0.0	0.0	0.0	3.1	20.6	0.1	0.0	0.0	0.0		0.0	0.0	0.0	0.60	
	실물 자산	총 실물자산	22062.5 ^a	17144.4	100	17244.2 ^a	18352.3	100	13085.5 ^a	16148.3	100	93.1	3115.6 ^b	3356.2	100	89.8
· 주택의 빚	· 주택의 빚	12250.0 ^a	9392.3	55.5	11348.8 ^a	9702.4	65.8	7671.1 ^a	8720.2	28.6		1903.1 ^b	3336.8	61.1	9.15***	
	· 주택의 전(월)세/임대보증금낸 것	212.5	601.0	1.0	546.5	2219.5	3.2	307.9	924.8	2.4		915.6	1585.6	29.4	0.91	
	· 거주주택외소유부동산 빚	9033.8	17524.4	41.2	3965.1	10976.0	23.0	3875.0	13044.3	29.6		242.2	1113.5	7.8	1.73	
	· 주택의 전(월)세/임대보증금낸 것	506.3	948.8	2.3	1383.7	4767.1	8.0	1231.6	2929.6	9.4		54.7	309.4	1.7	1.16	
	·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채	총 부채잔액	287.5	813.2	100	1430.2	4862.5	100	768.4	2014.6	100		78.1	236.6	100	1.22	
· 금융기관 부채	· 금융기관 부채	0.0	0.0	0.0	176.7	596.8	12.4	134.2	548.4	17.5		50.0	221.4	64.0	0.59	
	· 개인적으로 빌린 돈	0.0	0.0	0.0	0.0	0.0	0.0	100.0	500.3	13.0		28.1	99.1	36.0	0.91	
	· 전(월)세/임대보증금 받은 돈	287.5 ^a	813.2	100	1253.5 ^a	4788.2	87.6	534.2 ^a	1786.6	69.5		0.0 ^b	0.0	0.0	3.30*	
순 자산		28825.3 ^a	18296.7	100	17870.5 ^a	17599.1	100	13292.6 ^b	15787.7	100		3392.1 ^c	3858.8	100	8.24***	

*p<.05 **p<.01 *** p<.001; a, b, c는 duncan test 결과를 나타냄.

4) 가계재무비율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의 충분성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집단(여유로움 집단과 보통 집단)의 경우 월소득 규모가 월지출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어려움 집단과 매우 어려움 집단)의 경우 월지출과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출의 충분성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매우 어려움' 집단을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은퇴가계의 비상자금 충분성은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계가 약 50% 내외를 나타냈다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사건 발생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가계가 50% 내외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재무비율

가계경제요소 비율	여유(N=8)	보통(N=43)	어려움(N=38)	매우 어려움(N=32)	F값/x ²	
소득의 충분성	월소득/월지출	1.3 (1.16) ^a	1.3 (0.85) ^a	0.7 (0.48) ^b	0.9 (0.52) ^b	5.22**
	월소득/월최저생계비	2.0 (1.60) ^a	1.6 (1.29) ^a	0.9 (0.83) ^b	0.5 (0.42) ^b	8.96***
지출의 충분성	월지출/월최저생계비	1.6 (0.66) ^a	1.4 (0.97) ^a	1.1 (0.65) ^a	0.7 (0.54) ^b	6.72**
최저비상자금 유무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 수	0 (0.0%)	13 (30.2%)	17 (44.7%)	18 (56.3%)	10.9*

*p<.05 **p<.01 ***p<.001,

최저비상자금유무를 제외한 ()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a, b 위치자는 F 검증의 사후검증으로써 던컨테스트 결과임.

V. 결론

<표 17>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수준별

V. 결론

본 연구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여 취업가계와 비교해 보고, 나아가 은퇴노인가계를 그들의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자료인 노동패널 4차년도(200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취업노인가계와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측면 이상으로 은퇴노인가계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특성을 밝혀 낸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노인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으며 거주주택보유율이 높다. 또한 부부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은퇴노인가계는 57.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라고 평가한 집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는 집단이 여타집단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낮은 특성 이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노인가계와 같이 전혀 근로소득이 없으면서 거주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정부의 무료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은 취업노인가계의 53.9%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유형 중 이전소득은 연평균 256만3천원과 37.1%의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 반면, 취업노인가계는 연평균 47만1천원과 4.0% 낮은 구성비율을 나타내어 은퇴노인가계의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은퇴노인가계는 임계값은 아니지만 연평균 548만원 이하(월평균 45만6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질 때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느끼는 월평균 45만6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 53만6천원(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2인가구 기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은퇴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유지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소득수준을 가질 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비지출 수준은 취업노인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1인당 지출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식비 비중은 양쪽가계 모두하위 지출비목 중 1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특히 은퇴노인가계의 식비비중 즉, 앵겔계수는 41.9%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가계의 39.7%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비목이 '식비'라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은 주관적 경제수준별 집단

중 '가장 어려움' 집단에 속한 가계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은퇴가계의 26.5%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는 집단에 속하며, 이들 집단의 식비 지출수준이 여타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는 은퇴노인가계,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보이다.

나아가, 은퇴노인가계의 27.3%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응답자 역시 식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경제수준별 '매우 어려움' 집단에 속한 가계들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은퇴가계의 26.5%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느끼는 집단에 속하며, 은퇴노인가계의 '매우 어려움' 집단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20% 이상을 나타내며 여타 집단과 유의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노인가계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집단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확대 방안 모색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은퇴노인가계 총자산의 약 90%는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용 주택이 실물자산의 대부분(61.7%)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매우 어려움' 집단의 낮은 주택 보유율이 이 집단의 매우 낮은 자산규모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실물자산이 현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밝혀져 위의 결과와 함께 은퇴노인가계의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전문가나 금융관계자로 하여금 은퇴노인가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과 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비롯한 실물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1회에 한하여 감면해 줌으로써 부동산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변경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관계자 역시 역융자제도(Reverse Mortgage)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역융자제도는 주택 구입시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아서 매월 주택용자금을 갚아나가는 원리의 정반대로써 자신의 주택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주택의 시장가격만큼 은행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 제도이다.

다섯째, 은퇴노인가계의 소득의 충분성은 현재 지출수준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의 충분성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을 보였다. 은퇴노인가계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집단(여유로움 집단과 보통 집단)의 경우 월소득 규모가 월지출과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어려움 집단과 매우 어려움 집단)의 경우 월지출과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을 나타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출의 충분성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매우 어려움' 집단을 제외하고는 최저생

계비 수준 이상을 나타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은퇴노인가계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은퇴가계의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가계가 약 50% 내외를 나타내어 비상자금에 전혀 없는 가계의 경제적 사건 발생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접수일 : 2003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21일

【참 고 문 헌】

-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성영애 · 양세정(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이기춘(1995), 「가정경제학」, 교문사.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 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73~86.
-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 후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41~54.
- 정순희 ·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3), 59~73.
- 통계청(2002), www.nso.go.kr.
- Grad, S.(1990), Earnings replacement rates of new retired workers, *Social Security Bulletin*, 53(10), 2~8.
- Sabelhaus, J. & Manchester, J.(1995), "Baby boomer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791~806.
- Schultz, J.H.(1992), *The Economics of Aging*, 5th(ed), Auburn House.
- Zhong, L.X., Titus, P.M., & Johnson, D.P.(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 of ACCI*, 39, 74~81.
- McConnel, C. E., & F. Deljavan(1983), "Consumption Patterns of the Retired Household", *Journal of Gerontology*, 38(4), 480~490.